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doing **GOOD**



DOING GOOD INDEX 2026

아시아 소셜섹터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EXECUTIVE SUMMARY

재원은 점점 압박을 받고 있고 사회적 필요는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공익활동 인프라가 그 효과성을 시험받고 있다. 규제 체계, 세금 인센티브, 생태계 요인, 정부조달 기회는 전반적으로 성숙해졌지만 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조화가 소셜섹터의 규모 확대, 혁신,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점 더 제약하고 있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 CAPS)가 개발한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Doing Good Index, 이하 DGI)는 아시아의 민간 사회 투자를 위한 환경을 평가한다. 이 지수는 민간 자본이 사회공익단체(Social Delivery Organizations, 이하 SDOs)로 흘러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인프라를 상호 의존적인 네 가지 분야 —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공익 생태계, 정부조달 — 를 통해 평가한다. 17개 국가의 2,166개 SDO 설문과 132명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2026년도 지수는 아시아 소셜섹터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시점에 발간된다.

주요 데이터

아시아의 공익활동 인프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수에 응답한 SDO 중:

- 96%의 SDO가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받는다고 느끼지만, 충분히 신뢰받는다고 느끼는 곳은 43%에 그친다.
- 78%는 SDO의 주요 자금원인 국내 기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다.
- 73%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여, 연구 대상 전 국가에 걸쳐 인력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81%는 비지정 기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하며, 이는 조직의 유연성과 장기 계획 수립을 제약한다.

주요 결과

아시아 각 국가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올해 DGI 결과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두드러진다:

- **아시아의 소셜섹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고령화, 기후 위기,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는 가용 자원을 앞지르고 있다. 해외 개발 원조는 감소하고, 정부 예산은 긴축되며, 기부자층은 좁아져 SDO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공익활동을 위한 인프라는 존재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SDO의 등록 절차와 책무성 메커니즘은 개선되었으나, 해외 기부 제한, 규제의 복잡성, 일관성 없는 정부의 관여 등은 장애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정책은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SDO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만, 그 기반이 되는 소셜섹터 생태계는 약해지고 있다.**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는 지속되고 있으나, 언론의 인식, 인재 파이프라인, 제도적 인정과 같은 기반 여건은 취약해질 조짐을 보인다. 과도한 감독과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 부족이 신뢰를 임팩트로 전환하는 부문의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
- **자금 기반이 약하다.** 국내 민간 자본이 여전히 주를 이루지만 분산되어 있고, 필요한 규모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부자 풀이 좁아지고 있으며 비지정 기부는 여전히 희소하여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 **시스템이 연계됐을 때 우수한 성과가 나온다.** 올해 지수에서 싱가포르가 'Doing Excellent' 그룹에 진입한 것과 같이 네 가지 분야가 잘 정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명확한 규제, 접근하기 쉬운 세금 인센티브, 강력한 정부 파트너십, 그리고

i 본 보고서에서 "소셜섹터"라는 용어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요구하거나 공급하는 모든 개인, 기업, 단체를 지칭한다.

ii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본토,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이다. 본 보고서에서 "홍콩"과 "한국"은 각각 홍콩특별행정구, 중국;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가 민간 사회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SDO에게 협력을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제공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다수의 SDO가 운영에 SDGs를 적용한다. 2030년 목표 시한 이후에도 SDGs의 가치는 공동 행동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DGI 2026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익활동 인프라의 일부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구성 요소의 개선이 곧바로 성과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효과를 내려면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공익 생태계, 정부조달이 하나의 통합된 힘으로 작동하여 자본과 역량, 신뢰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 아시아의 기부 규모가 GDP 대비 2% 수준, 즉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면, **매년 7,530억 달러가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 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은 단일 요소의 개혁이 아니라 각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되는냐에 달려 있다. 개별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는 연금술이야말로 doing good을 doing excellent로 바꿔낼 수 있다.

 **17** 개국

 **2166** 개의 사회공익단체 설문 응답

 **132** 명의 전문가 자문

CAPS 소개

2013년에 설립된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APS)는 아시아 전역에서 필란트로피와 민간 기부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다. 17개 이상의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하며, 연구·자문·네트워킹·역량 강화를 통해 공익을 위한 민간 자본을 극대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필란트로피스트, 재단, 가족 기업, 기업, 정부 기관, 소셜섹터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민간 기부와 사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 모델, 정책, 전략을 논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ps.org> 및 링크드인 프로필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회공익단체(SDO)란?

CAPS는 “사회공익단체(SDO)”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필요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영리”라는 용어는 많은 조직이 영리나 사회적 기업의 수입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 “비정부기구(NGO)” 또한 아시아의 많은 조직이 정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SDO”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색다른 역할을 하는 순수한 어드보커시 단체와 사회공익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용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수입원이 있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운영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이 포함된다. DGI 2026에서 조사된 SDO의 88%는 비영리 단체이고, 6%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벤처다. 나머지 6%는 영리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벤처다.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DGI)란?

2018년에 시작되어 격년으로 업데이트되는 DGI는 민간 자본이 사회적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규제적·재정적·사회적 여건을 측정한다. 이 지수는 얼마나 많이 기부되는지를 추적하기보다, 기부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시스템, 즉 공익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살펴본다.

SDO 설문과 소셜섹터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 지수는 어떤 환경이 우호적인지, 어디에 격차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가능하고 근거에 기반한 관점을 제시한다.

지수가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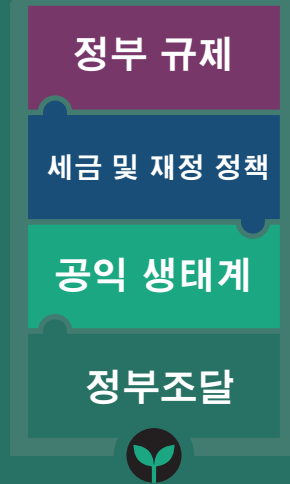
민간 자본은 아시아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임팩트는 자본이 작동하는 환경에 달려 있다.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선행을 향한 근거 기반의 로드맵을 제공한다:

- **신뢰의 동기를 규명한다** — 신뢰는 아시아 전역에서 기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본 지수는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과 관행을 규명한다.
- **새롭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창출한다** — 본 지수는 생태계와 자금의 동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 **정책 지렛대를 제시한다** — 본 지수는 소셜섹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지수가 다루는 범위

본 지수는 상호 의존적인 네 가지 분야에 걸쳐 17개 아시아 국가를 평가한다:

- **정부 규제** — 소셜섹터를 규율하는 법·정책 체계
- **세금 및 재정 정책** — 필란트로피 기부를 장려하는 세제 및 재정 수단
- **공익 생태계** —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 인재, 거버넌스, 대중의 인식



공익활동 역량의 승수 효과를 내는 DGI:

- **공익 생태계** —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 인재, 거버넌스, 대중의 인식
- **정부조달** — SDO로부터의 정부 구매.

방법론 개요

본 지수가 다루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본토,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17개 국가는 상대적 성과를 기준으로 다섯 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Doing Excellent,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본 지수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데이터 출처를 활용한다:

- 아시아 전역에서 설문에 응한 **2,166개 SDO**
- 정책 입안자·회계사·변호사·학계·소셜섹터 리더 등 17개 포커스 그룹에 걸친 **132명의 전문가.**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I 을 참고하기 바란다.

더 살펴보기: 인터랙티브 마이크로사이트

본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DGI 마이크로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생동감있게 탐색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주요 지표를 시각 자료로 살펴보거나, 대시보드를 통해 국가 간 데이터를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아시아*

*반올림되어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DO 개황



19년

조직 연령의 중앙값



54명

평균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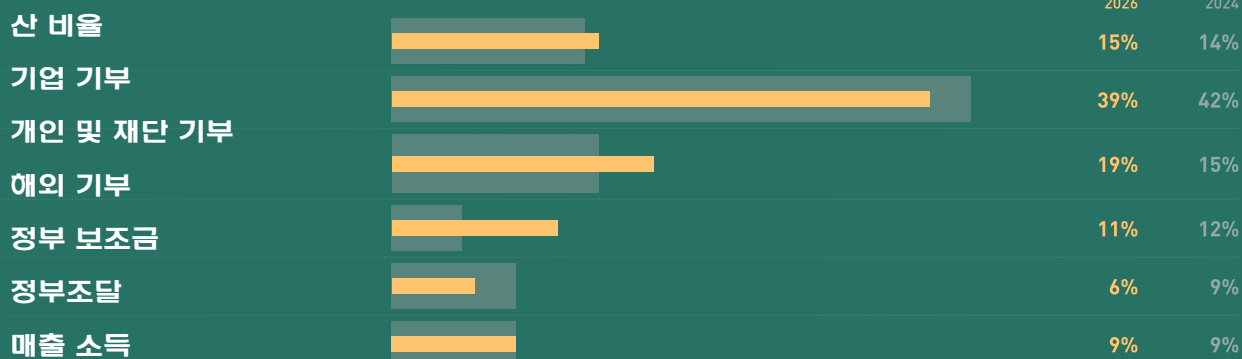


55%

여성 직원 비율 55%

재정

재정 출처에 따른 SDO 예



정부 규제

SDO 설립 용이성



3

단계 승인 절차



91 일

이 승인 받는 데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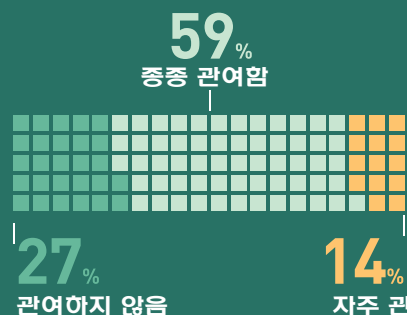
37%

등록이 쉽다고 느끼는 SDO

법 이해도



정책 협의에 관여하는 SDO



세금 및 재정 정책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

개인 기부 공제율

한도(아시아 평균)*

— 27%

기업 기부 공제율

한도(아시아 평균)*

— 23%

*한도는 과세소득, 납부세액 또는 기부액에 대한 비율로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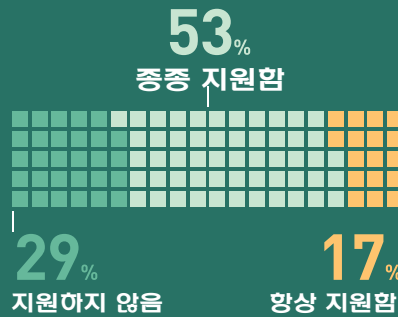
55%
비과세 혜택을 받는 SDO

공익 생태계

직원 채용 어려움



기부자가 역량 강화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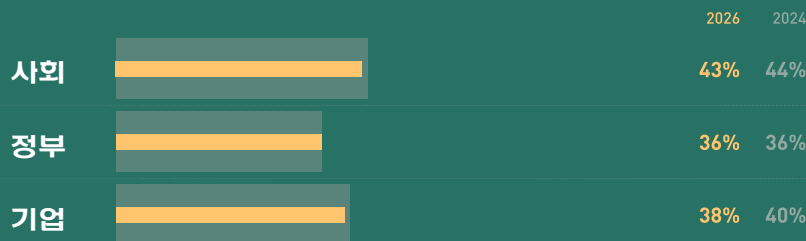


62%
기업 봉사자들과 협업하는 SDO



57%
기업 기부를 받는 S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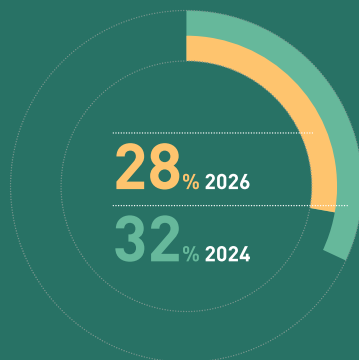
SDO가 신뢰감을 느끼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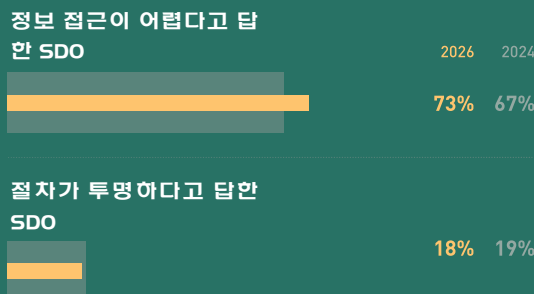
78%
국내 기부 수준이 낮다고 답한 SDO

정부조달

정부조달 계약을 한 SDO



정부조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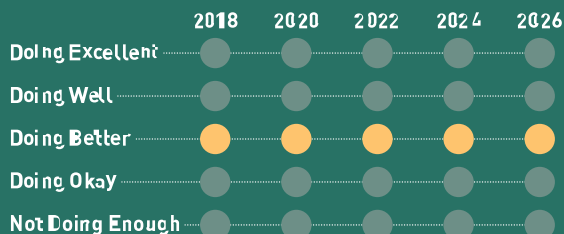
마이크로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비교하고 탐색해 보세요.



한국*

*반올림되어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룹 분류 결과



국가 개황*

인구(2024) : 51,751,065명

1인당 GDP, PPP 기준(2024): 61,051.35달러

추정 비영리단체 대 인구 비율: 1 대 1,179[^]

소득 수준, 세계은행(2024): 고소득 국가

*별도 출처 표기가 없는 한 세계은행 데이터에 근거함.

[^]가장 최근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CAPS가 산출함.

SDO 개황



17

년 조직 연령의 중앙값



88

명 평균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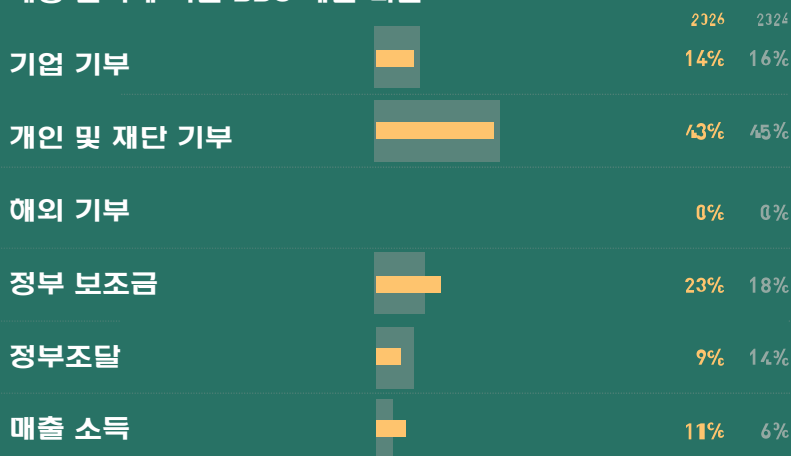


65%

여성 직원 비율

재정

재정 출처에 따른 SDO 예산 비율



정부 규제

SDO 설립 용이성



2

단계 승인 절차가 SDO 등록하는 데 필요



90

일이 승인 받는 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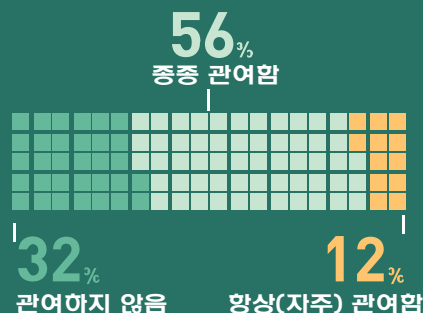
19%

등록이 쉽다고 느끼는 SDO

법 이해도



정책 협의에 관여하는 SDO



세금 및 재정 정책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

개인 기부 공제율

한도*

15%

30%

기업 기부 공제율

한도*

100%

10%

*한도는 과세소득, 납부세액 또는 기부액에 대한 비율로 적용될 수 있다.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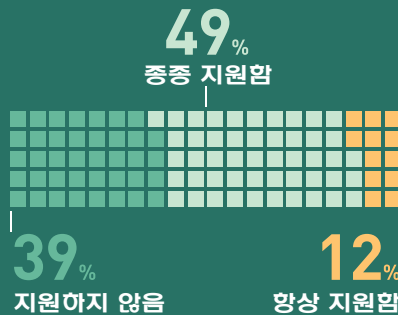
비과세 혜택을 받는 SDO

공익 생태계

직원 채용 어려움



기부자가 역량 강화에 지원



42%

기업 봉사자들과 협업하는 SDO



65%

기업 기부를 받는 SDO

80%

국내 기부 수준이 낮다고 답한 SDO

SDO가 신뢰감을 느끼는 대상

사회



2026 2024

20% 31%

정부



1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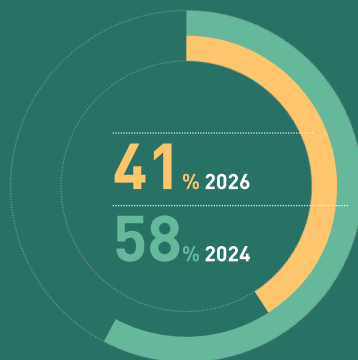
기업



20% 26%

정부조달

정부조달 계약을 한 SDO



정부조달 절차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답한 SDO



2026 2024

82% 82%

절차가 투명하다고 답한 SDO



36% 39%

마이크로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비교하고 탐색해 보세요.



부록 I

정부 규제	효율성	•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횟수 • 승인 소요시간 • 단일창구 존재여부
	기금의 흐름	• 해외 기부금 수령을 위한 승인 횟수 • 해외 기부금 승인 소요시간 • 해외 기부금 한도 • 기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들
	책임성	• 보고를 위한 의무사항 개수 • 이사회의 법적 책임 유무 • 고위급 간부의 법적 책임 유무 • 규제의 집행 여부
	소통	• 법의 접근성 • 법이 이해하기 쉬움 •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세금 및 재정 정책	기부자를 위한 혜택	• 개인 및 기업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요청의 수월함 • 유산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 기업기부 의무화
	지원대상자를 위한 혜택	• SDO를 위한 세금면제 • 정부보조금 수령 가능성 • 미사용 잉여금에 대한 처벌
공의 생태계	대중의 시선	• SDO에 대한 신뢰도 • 대중에 알려진 스캔들 • 개인기부 수준 • 간접비 한도
	대중의 시선	• 필란트로피, SDO, CSR에 대한 시상 • 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
	인재 인프라	• 직원과 자원봉사자 고용 •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비영리섹터 그리고/또는 필란트로피를 위한 대학교육 과정 • 임금격차
	바람직한 거버넌스	• 이사회의 존재여부와 그 구성원 • 이사회 내 기업 관계자 유무 • 이사회 내 정부 관계자 유무 • 엘리트층과의 연계
정부조달	조달 참여의 기회 접근성	• 조달 참여 자격 • SDO에 특화된 혜택
	조달 진행절차	• 정보 접근성, 투명성, 절차의 편의성